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인쇄/1998년 2월 5일

발행/1998년 2월 9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북한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5 팩시밀리 901-2542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29-X

4,500원

연구보고서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 우 영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 문학예술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역할은 지대하다. 김정일은 문학예술이 정치적 선전선동의 중요한 매체라는 근본 인식을 유지하였으나,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책은 시기별로 다르게 추구하였다. 본 연구는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양상을 사회변화의 맥락에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문학 예술 상황을 이해하고, 김정일의 정책성향을 전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남북한 문화통합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김정일 문예관의 형성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문학예술을 정치적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인식한 까닭으로 건국 초기부터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는다는 원칙을 문화 건설의 기본으로 삼은 북한에서 건국초기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문예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일제하 문예운동인 카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북한 문학예술계를 담당한 김정일의 초기 문예정책은 기존의 북한의 문예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시기 김정일은 문학예술을 정치적 교양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급성을 강조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1966년을 고비로 문예관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고 특히 김일성의 항일혁명운동을 소재로 삼는 항일혁명문학과 수령형상화문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

게 된다. 김정일은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카프의 맥락을 이어왔던 일단의 문인들을 수정주의자·반당반혁명분자로 숙청하고 문학예술에서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다.

2.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과정

1967년의 문학예술계 반종파투쟁을 통하여 구카프계열의 문학예술인은 제거되고 문학예술분야에서도 김일성 중심의 인맥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 북한 문학예술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령형상문학’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항일혁명문학’은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이와 같은 문학예술작품들의 창작을 독려하기 위하여 집체적 창작방식을 강조하고 검열제도를 정비하였다. 김정일의 지도하에 1970년대까지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 계열의 작품들이 양산되었다.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나, 편향된 작품들이 양산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문학예술의 정치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숨은영웅 형상문학’을 제기한다. ‘숨은영웅 형상문학’은 1980년에 본격화된 ‘숨은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을 문학예술분야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숨은영웅 형상문학’은 생활에 밀착된 소재를 다루고 있음으로 일반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과 차이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중국이 개방정책을 가속화함에 따라 북한은 체제유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은 문학예술에서 혁명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1970년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 계열의 작품 창작이 다시 활성화된다.

1992년의 「주체문학론」의 발간은 김정일의 문예정책이 골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주체문학론」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대체하는 '주체사실주의'를 주장한다.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적 인간의 구현을 작품 창작의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체문학론」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문학 작품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등 민족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과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실학자나 근대문학의 주요 인물들 그리고 카프계열의 작가들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김정일의 문예정책은 시기별로 강조점이 변하여 왔다. 초기에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수용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을 주장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숨은영웅형상문학'을 지향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다시 혁명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고, 1990년대에는 기존의 입장을 종합하여 '주체문예'를 주장하였다. 김정일의 문예관 및 문예정책이 변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북한 주민들의 문화의식의 변화와 외부문화와의 관계도 김정일 문예정책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3.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 전망

1990년대에 북한을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것은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이다. 1992년 1부작이 제작된 이후 1997년 현재 총 41부작이 완성된 「민족과 운명」은 자본주의사회가 문제가 있으며, 북한만이 행복한 체제라는 것을 그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족과 운명」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족과 운명」은 남한출신 인사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남한을 비롯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중심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작품 경향과 차이가 있다. 「민족과 운명」과 같은 작품이 제작된 것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이 개방의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사후에는 혁명성을 강화하는 작품이 다시 중시되고 있다. 소설 「뜨락또르 운전사 일가」에서는 천리마 시대의 노력영웅이 재등장하고 있고, 김일성·김정일이 동시에 등장하는 등 수령형상문학의 경향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일성 사후에는 1980년대에 일상적인 삶을 주로 다루었던 작가들도 혁명문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수회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체제의 위기적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혁명성을 강조하는 작품이 중시되었으나 1970년대와 같이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 일변도의 문예정책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도 다양한 작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문화의식이 점차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차례 -

I. 서론	1
II. 김정일 문예관의 형성 배경	5
1. 김정일 등장 이전의 문예정책	5
2. 초기 김정일의 문예관 및 문예정책	11
III.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 과정	16
1. 수령형상문학의 대두	16
2. 숨은영웅 형상문학의 등장	24
3. 혁명성의 강화	30
4. 주체문예이론의 정립	32
5. 김정일 문예정책 변화의 의미	41
IV.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 전망	50
1. 1990년대 북한 문예 상황	50
2. 김정일 문예정책 변화 전망	57
V. 결론	66
참고문헌	71
<부 록>	77

I. 서론

사회주의 체제의 문화정책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화정책과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문화정책이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맥락에서 결정되고 집행되어지는 반면에 사회주의의 문화정책은 정치적 맥락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문화를 사회의 자율적인 하위체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정치에 종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문화정책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문화정책 분석은 그 체제의 문화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정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문화를 정치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사회주의 국가가 문화정책이라는 용어 대신에 문예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가치와 규범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상적인 삶을 총괄하는 문화라는 개념 대신에 문학과 예술이라는 한정적인 창작행위 및 그것의 향수(享受)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문예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를 정치 이념의 전파 매체로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 문예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문예정책의 분석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전 체주의적 사회구조를 생각한다면 북한의 문예정책은 북한 현실 문화의 특성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예정책 분석은 북한 문화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둘째, 문예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예정책의 분석을 통

2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하여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의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다. 셋째, 문예정책의 변화가 지배집단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르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예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취향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북한 문예정책 변화를 김정일의 문예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일의 문예정책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북한이 반세기 동안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강력한 일인지배체제를 유지하여 온 결과 김일성 및 김정일의 정책과 북한의 정책은 동일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은 1960년대 이후 북한 문예를 총괄하여 왔고, 문화예술 분야를 관할하는 직책을 그만둔 이후에도 현재까지 북한 문화예술을 직접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현재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점에서 김정일의 문예정책 분석은 현재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두번째는 김정일의 문예정책은 김정일 개인에 대한 연구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일이 갖고 있는 정치사회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김정일 문예정책의 연구는 김정일의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김정일의 문예관이나 문예이론 그리고 문예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그다지 양이 많지 않다.¹⁾ 그리고 대부분의 기존

1) 이춘길, 「김정일의 문예관과 북한의 '문학예술혁명'정책 연구」(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론 연구」(서울: 문화체육부, 1996); 통합문화연구소, 「김정일과 북한문화예술」(서울: 통합문화연구소, 1996); 이우영, 「김정일 문예론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2권 1호 (1993).

연구들은 김정일의 문예이론이나 문예관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북한의 문화적 특성이나 문화정책을 설명하는 방편으로 김정일 문예관을 부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른 분야의 북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김정일의 문예관이나 문예정책의 특성을 규명하고 분석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이 정치적 선전선동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김정일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연구의 경향은 김정일의 문예관이나 문예정책 그리고 북한문학의 일반적 특성을 소개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김정일 문예정책의 본질이나 북한 문화의 구체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문화의 사회적 역할이 정치적 선전선동의 매체라는 점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 문화가 갖고 있는 역동적인 성격을 간과하는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김정일이 문학예술을 이용하여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에만 치중하였다고 봄으로써 김정일 문예관이나 문예정책을 정태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문예관을 주체문예이론이라고 하고 있으나²⁾ 김정일의 문학예술 관련 실무지도나 각종 담화를 검토하면(<부록> 참조) 김정일이 처음부터 주체문예이론을 지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김정일의 문예관 및 문예정책의 변화과정을 알아봄으로써 김정일 문예정책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2) 북한에서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독창적인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심으로써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이룩하게 하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정일동지략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p. 5.

4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기본 문예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북한이라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하는 문제와 북한 문학예술에서 혁명성과 인민성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변하여 가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의 문예정책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북한의 문학예술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일 문예정책과 북한 문학예술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김정일 문예관의 형성 배경

1. 김정일 등장 이전의 문예정책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1946년 북조선 각 도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전선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가 반동세력을 분쇄하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동무들이 문화전선에서 잘 싸우는가 못 싸우는가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³⁾ 일찍부터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 북한 문예정책의 이론적 바탕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⁴⁾이었다고 볼 수 있다.⁵⁾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특성은 “디테일의 충실함 이외에도 전형적인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성격들의 충실한 재현을 의미한다”라는 엥겔스(Engels)의 설명⁶⁾에 잘 집약되어 있다. 이것은 문학에

3)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1946.5.24),” 「김일성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 96.

4) 내용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 과정에서 레닌에 의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예술양식으로 승인받았다. 반성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이론,” 「중소연구」, 14권 4호 (1990 겨울), pp. 10~11. 그러나 초기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리얼리즘, 경향적 리얼리즘, 공산주의적 리얼리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명칭으로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정착된 것은 1932년 스탈린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명명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C. V. James,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론: 기원과 이론」, (서울: 녹진, 1990), pp. 130~131.

5) 김일성은 “우리의 문학, 예술인들은 앞으로 계속 문학, 예술에 있어서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한 견결한 사상투쟁을 완강히 전개하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작 방법에 엄격히 탐각하여 자연주의, 순수 예술의 각종 표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 (1956.4.23),” 「김일성 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01.

6) F. Engels, “Letter to Margaret Harkness,” Lee Baxandall & Stefan

술 작품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충실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특정한 '경향성'(tendency)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향성이라는 것은, 소망스러운 상태 혹은 이룩되어야 할 목표라고 볼 수 있다.⁷⁾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예술은 정치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하고 있다.

현실을 혁명적 발전 속에서 역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묘사하는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 방법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인류가 축적한 문학예술창조의 경험과 성과들에 기초하여 발생발전한 가장 선진적인 창작 방법으로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으며 오늘의 현실묘사에서 미래의 싹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혁명적 광만성의 원칙을 그의 유기적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다.⁸⁾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특성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신 데 기초하시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어로 발전풍부화시키었다.⁹⁾

Morawski, ed. and trans., *Marx & Engels: (On Literature & Art* (St. Louis: Telos Press, 1973), p. 114.

7) 경향성에 대해서는 Manfred Kliem, ed. 조만영·홍재경 역, 「맑스·엔겔스 문학예술론 1」 (서울: 돌베개, 1990), pp. 155~156 참조.
 8)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337.
 9)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 498.

초기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기본적인 문예이론이었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카프문학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하고 있듯이,¹⁰⁾ 구체적인 창작이론으로 일제시대 카프의 전통이 계승되었다. 북한 건국 초에 북한 문학계에서는 카프의 해소파와 비해소파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나 논쟁에 참여한 작가나 평자들 대부분이 카프적인 전통에서 있었다.¹¹⁾ 카프의 문예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일제하라는 식민지 상황에서 초래된 민족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카프적인 경향은 남로당이 숙청된 이후 1950년대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수용하고 일제하 카프의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초기 북한의 문예정책이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계급적 문제를 중시하면서도 이에 못지 않게 민족성도 중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조선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의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발휘하였으며 또 발휘하고 있는 숭고한 애국심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애국심은 가지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 데서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애국심과 아울러 우리 민족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작품에 표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 무근거한 민족주의적 우월감이라든가 타민족에 대한

10) 「조선중앙년감 195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7), p. 111.

11) 이들의 논쟁을 남로당과 북로당간의 대립으로 본다든지, 전쟁 이후 남로당 계열 작가의 비판을 일제시대 카프적 전통과의 단절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pp. 15~19.

경멸감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인민 문학, 그중에는 특히 민요, 구전 문학 등을 연구하여 광범히 리용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민요라고 해서 죄다 좋은 것도 아니며 구전 문학이라고 해서 죄다 리용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예술가들은 과거의 민요 그대로를 존속함으로써만이 민족 문화의 계승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민족 문화 발전의 기본 로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¹²⁾

김일성의 이러한 문예관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곧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이 된다. 김일성은 전통문화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나 완전히 무시하는 것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족문화의 계승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훌륭한 문화 유산을 계승하며 소련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문화를 섭취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문화인 중에는 그릇된 두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고유한 것만을 좋다고 하고, 외국의 것은 다 나쁘다고 하는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것은 다 나쁘다고 하고 서양의 것만을 좋다고 하는 경향입니다. 이 두 경향은 다 옳지 않습니다. 전자는 자기의 락후한 것까지도 그 대로 보존하고 남의 좋은 것을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경향이며 후자는 자기 민족문화의 우수한 점을 부인하고 덮어 놓고 서양화하려는 허무주의적 경향입니다.¹³⁾

12) 김일성, “전체작가예술가들에게 (1951.6.30),” 「김일성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pp. 238~51.

13)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한다,” p. 100.

1960년대 북한은 김일성의 1955년도 논문 “당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발표 및 1956년의 ‘8월 종파투쟁’을 통해 김일성 개인으로의 권력집중이 가속화되고 유일사상체계가 성립되는 시기였다. 북한의 문예정책도 유일사상체계의 성립이라는 정치적 환경변화와 관련을 가지면서 이전 시기와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기본적으로 문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역할은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에서 “문화 혁명에서 주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지식을 높이는 것”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해설 선전하여야”하고,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 방법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문학예술이 인민의 심장을 울리며 인민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 사회주의적 내용과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 형식이 옹게 결합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⁴⁾ 따라서 국가는 “우리시대의 위대한 현실과 우리 혁명의 빛나는 전통을 형상화하기 위한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의 가일층의 개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한다”라는 관점에서 문예정책을 추진하게 된다.¹⁵⁾

문예정책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정책의 지향점은 1960년대에 들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1956년부터

1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1961.9.11),”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pp. 23-4~35.

15) 한상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961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2년 국가예산에 관한 보고,” 「북한최고회의자료집 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983.

시작된 천리마운동의 결과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을 부각하는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이 독려되었다는 점이다.¹⁶⁾ 문예정책에 천리마운동을 도입함에 따라 문학예술을 통하여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선전하고 집단적 사상교양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두번째로는 항일혁명문학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항일혁명문학은 1957년에서 1960년까지 보급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4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67년 12월에 개최된 최고 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발표된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김일성은 모든 문예창작에서 항일혁명문학을 중심으로 할 것을 공식 천명한다.¹⁷⁾ 항일혁명문학이 대두된 것은 유일시상을 문예정책에도 반영한 것으로서 문학예술을 통하여 김일성의 위상화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이란 김일성이 1930년대 중국에서 항일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한 연극, 가요 등의 전통을 이어받자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항일혁명문학이 맑스-레닌주의문예론 혁명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그것을 조선의 상황에 적용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⁸⁾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원칙하에 창작된 작품들은 주로 김일성이 항일 빨

16)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9」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99. 김일성은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웅대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 있는 인민의 위대한 창조적 생활을 힘있게 형상화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1960.11.27),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44.

17) “우리는 당의 문예정책을 받들고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그것을 계승한 현시기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모습과 약동하는 현실을 형상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전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에 더 잘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공화국 정부 10대 정강 (1967.12.1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267.

18) 「문학예술사전」, p. 924.

치산운동을 하던 시기의 일화들을 다룬 것들이 많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혁명가극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조국의 별」 연작 등을 들 수 있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반외세와 주체확립 그리고 반부르주아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항일혁명문학은 민족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카프의 문예 전통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계급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항일혁명문학을 정립하는 동시에 집체적 창작 방법을 강조하고 문학예술 창작에서 대중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문학예술의 보편화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중성의 강조는 한편으로는 문학예술이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반인테리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¹⁹⁾

2. 초기 김정일의 문예관 및 문예정책

문예 관련 문헌들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1960년대 초반 김정일은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의 문예관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

19) 문학예술에서 대중성의 강조는 군중예술을 중요시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일성은 “군중예술은 사상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소박하고 락천적이여야 합니다. 농촌예술소조들은 간단한 사실을 잘 형상한 작품을 가지고 대중을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군중예술의 사명입니다”라고 말하고 “몇몇 전문작가, 예술인들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근로대중이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하고 대중의 지혜가 발동되어야 인민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노래한 좋은 예술작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김일성, “군중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 (1961.3.7),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54~55.

고 있다. 이것은 1964년 12월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김정일의 연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이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내용을 그들의 구미에 맞는 민족적형식에 담아 사람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입니다.²⁰⁾

문예를 정치적 교양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점, 계급성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문학예술 작품은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 점 등 김정일의 주장은 맑스·엥겔스 그리고 레닌과 도·택동이 강조하였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또한 이 시기 김정일의 문예관은 1950년대까지의 기존의 문예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²¹⁾ 이와 같은 입장에서 김정일은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 남한의 현실과 남한주민들의 혁명투쟁, 그리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다루는 작품을 골고루 창작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기간에 김정일이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예술영화 「성

20) 김정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1964.12.10),”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 50.

21) 1956년의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조선작가동맹 위원장이었던 한철야는 북한의 현대 문학이 레닌적 원칙을 고수하는 당적 문학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으며, 조선작가동맹 규약에는 맑스·레닌주의와 그 미학 이론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창작의 기본 방법으로 삼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차 조선작가 대회 문헌집」,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p. 10; p. 396. 1961년 발족한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발전한 진보적인 민족 문화유산과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예술동맹(카프)의 문학예술 전통, 특히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시기의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을 규약에 포함하고 있다.

장의 길에서」(1965)도 남한의 4·19를 소재로 삼고 있다.

김정일이 초기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가 북한 고유의 혁명전통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혁명전통은 항일혁명투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끈 수령님의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깊이 있게 형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김일성과 그를 추종하였던 빨치산들을 소재로 한 작품 창작을 독려하고 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김정일은 김일성이나 빨치산의 투쟁기를 다양한 소재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 속성을 유지하던 김정일의 문예관은 점차 변화를 겪게 된다. 1966년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의 담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나는 지금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걸어온 길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수령은 혁명의 최고너수, 최고령도자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문학도 마땅히 수령에 관한 문제를 첫째가는 중심문제로 제기하고 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²³⁾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김정일의 재해석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는 분명히 차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강조하는 전형성의 모형은 노동계급이 중심인 반면 김정일은 “수령형상문학”을 중심에 놓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 역량을 묘사하

22) 위의 글, p. 52.

23) 김정일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1966.2.7),” 「김정일 선집 1」, pp. 113~114.

는 것보다 수령이라는 개인에 대한 이상화를 문예창작의 일차적 의의로 삼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문예관 변모는 구체적인 작품 평가에서도 반영된다. 김일성 이상화 작품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1946)이 높이 평가되고, 빨치산을 소재로 한 예술영화 「한 지대장의 이야기」(1965) 등의 작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기존의 문예관과 김정일의 문예관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1967년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카프의 맥락을 이어왔던 박팔랑·박금철·김도만·안함광 등이 수정주의자·반당반혁명분자로 숙청되었는데²⁴⁾ 이를 기회로 김정일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속에 있는 “봉건유교사상, 자본주의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타파하고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정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²⁵⁾ 이와 같은 주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음의 글이다.

24) 1967년의 반종파투쟁은 그 해 1월 김일성이 천서봉 원작 소설 「안개 흐르는 새 언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술영화 「내가 찾은 길」을 부르주아적 요소와 수정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일성, “혁명주제작품에서의 몇가지 사상미학적 문제 (1967.1.10),”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13~28 참조. 그러나 당시에 북한 문학계에서 비평문학을 주도하였던 안함광은 「안개 흐르는 새 언덕」이 기존의 교조주의를 극복한 탁월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안함광,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에 대한 송가- 장편소설 안개흐르는 언덕을 두고,” 「문학신문」, 1966.9.9. 1967년의 반종파투쟁은 미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천서봉의 소설을 둘러싸고 사회주의 문예에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교조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북한의 문학사에서 본다면 1945년 이후 지속되었던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의 대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카프와 항일혁명문학을 동등하게 혁명전통으로 인식하였던 기존의 관점이 폐기되고 항일혁명문학이 유일하게 혁명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pp. 217~219 참조.

25)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뽑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1967.6.25),” 「김정일 선집 1」, pp. 231~23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문학예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학예술은 사상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불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집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문학예술부문에서부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²⁶⁾

26)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1967.7.3),” 「김정일 선집 1」, p. 275.

Ⅲ.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 과정

1. 수령형상문학의 대두

1967년의 문학예술계 반종파투쟁²⁷⁾의 결과 구카프계열의 문학예술인은 명실상부하게 제거되었고, 문학예술분야에서도 김일성 중심의 인맥만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었으나,²⁸⁾ 내용상으로는 수령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북한 특유의 문예관이 성립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1972년 9월 6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 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를 소집하고 문예

27) 정치적인 종파투쟁에 비해서 문화부문의 종파투쟁은 십여년이나 늦은 1967년에 완결되었으며, 이 종파투쟁의 타도 대상은 구 카프계열의 문학인들이었다. 1955년 12월의 김일성의 「사상 사업에 있어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는데 관하여」에서는 이태준을 반동적 부르주아 작가로 규정하고 이들과 결탁되어 있는 박창옥을 비판함으로써 정치적 종파투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종파투쟁의 핵심에 문화예술계가 연관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1956년 1월 22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22차 상무위원회에서 「문학 예술 분야에 있어기의 반동 부르주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함에 대하여」가 결정되었고 카프계열에 대한 비판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그 해 10월에 열린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는 여전히 카프문학을 혁명전통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항일혁명문학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1959년의 '부르주아 잔재와의 투쟁,' 1961년 한설야 비판 등이 진행되면서 항일혁명문학이 제기되고 항일 무장투쟁에서 창조된 혁명문학이 국내 카프 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문화계 종파투쟁에 대해서는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pp. 125~167 참조.

28) 1980년대까지도 북한에서는 주체적 문예이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들고 있다.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 8~17. 그러나 1990년대에 나온 주체문예이론 해설서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최길상, 「친애하는 지도자의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업적 4: 주체문학의 새 경지」(평양: 문예출판사, 1991) 참조.

총 산하 당원들과 창작가들이 여전히 “수정주의, 사회주의, 봉건유교 사상,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을 회복하고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 사상과 이론을 창작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²⁹⁾ 특히 김정일은 1970년대 초에 들어서서 문예이론에서도 주체 사상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역사적시대를 반영하는 문학예술은 옹당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어야 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공산주의적 문학예술이다.³⁰⁾

따라서 북한에서는 1967년의 반종파투쟁을 계기로 과거의 문예관이 폐기되고 새로운 문예이론으로 수령형상 문학이 정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1967년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문학예술부문에서 구체화시키는 정치·사상 투쟁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이를 구체화시키는 문예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이 주도한 새로운 문예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학예술 창작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문예관을 구현하는 작품 창작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김정일은 일차적으로 문학예술창작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체계를 정비하였고, 이것

29) 김정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1972.9.6),” 『김정일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432~435.

30) 김정일, “영화예술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00.

이 구체화된 결과가 문학예술사업의 3위1체 체제이다. 김일성이 제안하였고 김정일이 실천하였다는 3위1체 체제는 수령을 중심으로 로동계급의 당과 문학예술행정, 사회단체가 문학예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³¹⁾ 3위1체 체제에서 작가들은 문예총이나 작가동맹과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작품을 창작하고, 문화성과 같은 행정조직은 창작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활동은 당이 감독한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창작 주체인 작가와 이들이 속한 문예총과 각종 작가동맹의 위상 변화가 두드러진다. 3위1체 체제하에서 작가는 창작 주체이기는 하지만 문학예술조직, 행정조직 그리고 당의 규제 아래에 있게 되므로 작가의 자율적 영역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과거 문학예술인 단체들은 문예이론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북한 문예이론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문학예술단체가 단순히 사회단체에 불과하며, 이들 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의 지침을 받아 작가들을 교양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과거 북한 문학예술계에서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었던 문예총이나 작가동맹의 위상은 대폭 약화되는 반면 문학예술 분야에 대한 당의 지배력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위1체 체제와 더불어 작가와 작품에 대한 당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일은 심의체계를 개선하였다.³²⁾ 그는 심의체도가 미비하여 작품창작에 혼란이 온다고 주장하고 작품심의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즉, 작가는 개별 작품을 심사하는 '심의성원'의

31) 현종호·홍국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업적 3: 우리식 문학예술사업체계의 확립과 작가, 예술인 대오육성」(평양: 문예출판사, 1990), pp. 34~49.

32) 위의 책, pp. 53~57.

종합심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심의성원은 작품창작이 완성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의성원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작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정책,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작품들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³⁾

심의제도 자체를 강화하는 동시에 김정일은 구체적인 창작과정에서도 통제가 용이한 구조를 구축하였다.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학 예술 장르인 영화의 창작과정에서 개인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반면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연출분야의 중요성을 격하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전 검열이 손쉬운 영화문학(시나리오)을 연출보다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연출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부연출자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부여한다.³⁴⁾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이 강조하는 집체창작도 작품창작에서 개인의 문화적 가치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구조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간접적인 통제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문예관에 적합한 작품 창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새로운 작품경향을 대표하는 것으로 “수령형상문학”을 제기하였다. 수령형상문학의 기본은 문자 그대로 수령의 위대성을 그리는 것으로서 북한에서는 수령형상문학이 “당원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편단심 수령님을 충직하

33) 김정일,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 (1971.2.15),” 「김정일 선집 2」, pp. 170~176.

34) 김정일은 자본주의 영화의 조감독과 구별하여 부연출가를 개념정의하고 있다. 조감독은 단순한 보조 업무이지만 부연출가는 창작가로서 영화창작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영화예술론」, pp. 266~271. 김정일은 부연출가에게 특정한 정치적 역할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연출자에게 창조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작품에 대한 연출자의 개인적 판단이나 취향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 받들고 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한다.³⁵⁾

북한에서는 수령형상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김정일이 창작하였다고 하는 「충성의 노래」(1953)와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1971)을 꼽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시가 “김일성을 끝없이 그리며 흠모하는 주인공의 감정세계가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온다”고 높이 평가하고, 이 작품들을 수령형상문학의 전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³⁶⁾ 다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전문이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곳은 그 어데일가

적후천리 밀림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꿈결에도 그리운 아버지 장군님
자나깨나 뵈고 싶은 우리의 장군님
머나먼 적후에서 북녘하늘 우리러
전사들은 아침인사 드리웁니다

35)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91), pp. 163~164.

36) 최언경·황지철·홍국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학예술업적 2: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위대한 변혁」, (평양: 문화예술종합출판사, 1993), pp. 21~22;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pp. 25~26.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을 전하며
 아침해빛 전사들의 길을 밝히네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
 기어이 기어이 찾아가리라

김정일의 「어디에 계시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살펴보면 수령형상문학의 주요한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최고사령부」, 「적후천리 밀림」, 「가을바람 찬바람」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령형상문학에서 형상화의 대상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령형상문학은 항일혁명문학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둘째, 김일성의 구체적인 활동보다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이 작품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령형상 문학이 단순히 김일성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따사로운 품」, 「자애로운 어버이사랑」 등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서의 차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령형상문학은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감응을 통하여 유일지배체제를 내면화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직접 수령형상문학을 창작하는 동시에 모든 장르에서 수령형상문학 작품의 창작을 독려하고 감독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수령형상문학과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항일혁명문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소설분야에서는 「불멸의 력사」 총서 시리즈가 수령형상 문학을 대표한다.³⁷⁾ 「불멸

37) 북한은 김정일이 「불멸의 력사」로 이름을 붙이고 매 작품마다 소설제목을 따로 달아서 1, 2, 3권 식으로 출판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최길상, 「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업적 4」, p. 19.

의 력사' 총서는 1972년 장편소설 「1932년」과 「혁명의 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출판된 장편소설 시리즈로서 '항일혁명투쟁시기편'만 모두 15권의 개별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다. 김일성의 초기 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다루는 1부는 「혁명의 여명」(1972), 「맞은 올랐다」(1982), 「은하수」(1982), 「대지는 푸르다」(1981), 「봄우뢰」(1985) 등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들고 일제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정치, 군사활동을 벌이는 내용이 중심인 2부는 「1932년」(1972), 「준엄한 전구」(1982), 「백두산 기슭」(1978), 「혈로」(1988) 등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부는 김일성이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추진하여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1976), 「두만강 지구에서」(1979), 「근거지의 봄」(1982), 「압록강」(1983), 「잊지 못할 겨울」(1984), 「위대한 사랑」(1987) 등의 6개로 이루어져 있다. 「불멸의 력사」 시리즈는 앞의 김정일의 시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삼고 있고, 김일성의 뛰어난 능력을 부각하고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그리고 있다.

영화부문에서는 「유격대5형제」(1·2부 1968; 3부 1969)가 수령형상문학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대본만 50여권에 달하는 장편영화 「유격대 5형제」를 16번이나 보았고, 창작과정에서 120여 차례나 지도를 하였다고 말할 정도로³⁸⁾ 중요하게 평가하는 작품이다. 「유격대5형제」는 만주지역의 4촌을 포함한 5형제가 일제의 억압에 반발하여 유격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내용의 영화로서 김일성의 위대함과 김일성을 흠모하는 사람들의 충성심이 강조되고 있다. 「유격대 5형제」로부터 시작한 영화부문의 수령형상문학은 「이름

38) “문학예술혁명과 빛나는 령도,” 「조선예술」, 330 (19846), p. 16.

없는 영웅들」(1979~1980) 20부작 그리고 1980년대의 「조선의 별」(1980~1989) 10부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작품 창작을 독려하는 동시에 김정일은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활동기에 창작하거나 공연하였다는 항일혁명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혁명대작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5대혁명가극인 「피바다」(1971), 「당의 참된 딸」(1971), 「꽃피는 처녀」(1972),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 「금강산의 노래」(1973)가 제작되었고, 「성황당」(1978)을 필두로 「혈분만국회」(1984), 「딸에게서 온 편지」(1987), 「3인1당」(1987), 「경축대회」(1988) 등의 5대혁명연극이 제작 공연되었다. 김정일이 창작하였다는 작품들과 더불어 '불후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혁명대작들이 빨치산 활동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주도하지 않았던 항일운동을 다루는 작품들은 여타의 항일운동이 정치적·역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는데 주력한다.³⁹⁾ 「피바다」나 「꽃피는 처녀」와 같은 주요 혁명가극들은 영화와 소설로도 재창작되었고, 현재까지도 연속 공연되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대표적인 문학예술 작품이 되었다.

김정일은 수령형상문학의 창작을 독려하고 집체적 창작 방법을 정착하기 위하여 장르별로 창작단체를 결성하였다. 김정일은 “북한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문학창작에서도 집체창작단이 중요”하고, “집체창작은 새로운 혁명 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대

39) 이준열사를 다루고 있는 「혈분만국회」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된다. 이 작품에서 말하는 것은 이준열사의 애국심이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는 항일운동은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이 김일성의 항일운동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1979)이다. 이 영화에서는 안중근의사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항일운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중근의사의 의거는 사소하고 부분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며 김일성이 출현함으로써 민족의 열망을 모아 의미 있는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김정일이 주장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은 수령형상의 창조이고, 수령을 올바르게 형상화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창작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⁴⁰⁾ 이에 따라 영화부분에선 1967년 2월 백두산 창작단을 조직하였고, 문학부문에서는 같은 해 6월 4·15 창작단을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작가동맹에 소속되어 수령형상문학의 창작을 주로 담당하였고, 김정일과 당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

2. 숨은영웅 형상문학의 등장

1980년대 북한 문학예술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 북한 문학예술계의 성격변화를 특징 지우는 것은 조선로동당 제 6차 당대회에서 중요하게 평가받은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이다. ‘숨은 영웅’은 김일성이 1979년 10월 7일 새 품종을 만든 여성과학자에게 처음으로 부여한 칭호로서, 김일성은 그 해 말까지 일련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에게 ‘숨은 영웅’ 칭호를 잇달아 부여하였다. 1980년에 들어서서 북한에서는 ‘숨은 영웅’을 따라 배우는 사회정치적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시작되었다. 북한에서는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를 “혁명위업을 추동하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으며,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가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구현과 주민들의 사상 교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⁴¹⁾

40) 김정일, “4·15 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1967.6.20),” 「김정일 선집 1」, pp. 245~247.

41)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대중운동,” 「근로자」, 453 (1980.1), pp. 18~19; 위찬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공산주의적 사상개조운동,” 「근로자」, 454 (1980.2), pp. 57~58.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는 1980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던 ‘조선작가동맹 제3차 대회’를 계기로 문학예술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가동맹 회의 앞으로 보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숨은 영웅들을 널리 찾아내어 이들의 고상한 품모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훌륭히 형상함”을 작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⁴²⁾ 작가동맹 위원장 천세봉은 당의 새로운 지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혁명적인 문학작품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라고 주장하게 된다.⁴³⁾

숨은 영웅을 중심적인 창작대상으로 삼는 문학예술의 새로운 경향도 김정일이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1980년 1월의 작가동맹회의와 1981년의 3월의 전국문화예술인열성자대회를 열도록 지시하였고, 작가동맹의 회의에 맞추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열성자대회에는 “주체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서한을 보내어 새로운 경향의 작품 창작을 독려했다.⁴⁴⁾ 1980년대 초 북한 문학예술계의 새로운 창작 분위기는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1982년 우리 문학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밑에 철두철미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경지의 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길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⁴⁵⁾

4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 앞,” 「조선문학」, 388 (1980.2), p. 12.

43) 「로동신문」, 1980.1.11.

44) 정룡진·강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문학령도사 3」,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pp. 20~21.

45)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 339.

위의 글은 「조선중앙년감」에서 1982년도 문학예술 부문의 성과를 개괄하는 부분의 첫머리이다. 1970년대까지 「조선중앙년감」 등에서 해당 연도의 문학예술을 총괄하는 글은 항상 혁명문학과 주체사상의 확립 혹은 수령형상문학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본다면, 1980년대 초의 문학예술 분야의 분위기가 이전 시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초반에 문학예술의 성과를 평가하는 글에서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 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고, ‘인민의 지향’이나 ‘시대의 요구’를 개별 작품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⁴⁶⁾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학예술작품이 인민의 지향과 시대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현실을 탐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글을 통해서 김정일(당중앙)이 문학예술 분야의 새로운 경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문예정책의 변화는 구체적인 작품 창작에도 반영되었다. 다음의 시는 김정일의 지도로 창작되었다고 하는 「땅우의 별들」로서 새로운 경향의 작품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숨은 영웅들
 이는 당의 빛발을 받아안고
 그 품에서 빛나오른 땅우의 별들
 그것은 천이 되고 만이 되어
 다투어 령롱한 빛을 뿌리여라

46) 「조선중앙년감 198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4), p. 276.

위의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숨은 영웅들은 항일혁명 문학이나 수령 형상문학에서 등장하는 영웅적 인물과 대비되는 다수의 그리고 익명의 보통사람들이다. 물론 이들도 '당의 빛발 받아안고 그 품'에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이래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주인공이었던 사람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의 핵심적 인물들은 항일혁명투사가 아니라 보통의 기술자, 하급 당원, 간호사, 주부, 농부 등이 된다. 주인공의 자리를 보통사람이 차지함에 따라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다부작은 아니지만 일종의 시리즈로 제작된 예술영화 「우리누이집 문제」(1981), 「우리작은집문제」(1983), 「다시 시작한 우리집문제」(1987), 「우리 삼촌집문제」(1988)가 1980년대의 새로운 작품 경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북한의 대표적인 근로의욕 고취 영화인 3부작 「언제나 한마음」(1982~1985)도 한국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공장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있다. 일상생활 속의 보통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새로운 문학예술 경향은 1980년대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영화 「도라지꽃」(1987)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라지꽃은 산간지방의 평범한 여인이 고향을 버리고 도회지로 떠나려는 애인과 결별하고 고향을 지키면서 가꾼다는 내용의 영화이다.⁴⁷⁾

소설에서도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다. 1984년에 나온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한 제철소의 당책임비서로 일하는 주인공이 용광로 보수 공사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다루

47) 「도라지꽃」은 1987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빨리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에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고 있다. 주인공이 지배인과 기사장, 금속공업부 부부장과와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지배인을 도우면서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장내의 갈등, 부부간의 관계 등이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소설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창작되어진다. 「60년 후」(1985)는 한 공장의 지배인으로 일해온 일꾼이 정년으로 해임통지를 받은 다음에 심리적 좌절을 겪으나 부상을 무릅쓰고 자신의 직분을 다함으로써 해임통지가 취소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남한에서도 출판되어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던 「비」(1988)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민재판소의 판사가 주인공이며, 이혼문제, 인텔리 문제 등이 작품의 주제이다.⁴⁸⁾

김정일이 숨은 영웅을 다루는 문학예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이 등장하였다고 해서 북한 문학예술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북한에서는 숨은 영웅들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은 “고상한 사상적내용과 커다란 감화력”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든다고 보고 있는데,⁴⁹⁾ 이것은 문학예술을 통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기존 북한의 문예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숨은 영웅을 다루는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었으나 기존의 수령형상 문학 계열의 작품들의 창작도 병행되었다. 대표적인 수령형상 문학인 다부작 예술영화 「조선의 별」이나 「불멸의 력사」 총서 그리고 김정일을 소재로 삼고 있는 「불멸의 향도」와 김정숙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충성의 한길에서」 연작도 같

48) 1980년대 북한 소설에 대해서는 김계용, “1980년대 북한 소설 문학의 특징과 문제점,”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참조.

49)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3」 (서울: 고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250.

은 기간에 출판되었던 작품들이다. 따라서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이 등장한 것을 기존 문예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은 혁명전통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작품의 소재가 바뀌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이전 시기의 문학예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문학예술에서 현재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은 김일성이 직접 창작하였다고 하는 ‘불후의 고전’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혁명전통의 정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무대가 과거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의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은 사회주의 건설기 이후의 인물들이나 사건이 작품의 소재가 되고 배경이 되고 있다.

둘째, 문학예술이 갖는 정치적 목적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개별 작품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요구가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고르게 강조되고 있으나, 이 시기에는 ‘인민들의 지향’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인민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⁵⁰⁾

셋째, 소재의 다양화는 작품 자체의 다양화를 동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숨은 영웅을 주인공으로 하고 인민들의 요구를 중시함에 따라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첩보물, 희극류 등의 작품도 등장하고, 역사물의 내용도 다양해졌다. 특히 예술영화 「홍길동전」(1986)이나

50) 1980년대 초에 나온 문학예술 이론서에서는 인민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문학예술의 예술적 품위는 작품의 형식, 형상이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교시 가운데서도 “인민들이 좋아하는 것이라야 훌륭한 작품,” “오늘 우리에게는 광범한 인민들이 부를수 있는 혁명적이고 통속적인 노래가 필요합니다” 등 인민성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 105~106.

1987년부터 시작된 「림격정」 연작은 자본주의 문화의 오락물과 견주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넷째, 작품에서 등장하는 갈등구조가 다양해졌다. 수령형상 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에서는 제국주의와 해방세력, 종파주의자와 반종파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등 비교적 극치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갈등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숨은 영웅 형상 문학에서는 세대간의 갈등, 도시와 지역간의 갈등, 남녀간의 갈등 등 일상적인 수준의 갈등구조가 작품의 주제인 경우가 많다.

3. 혁명성의 강화

1980년대 초반 사상적인 측면에서 다소 이완되었던 북한 문학예술계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다시 혁명성과 이념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주도한 것도 김정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당시 문예총 위원장이었던 한설야의 숙청을 위해 5차대회가 열린 지 25년만에 개최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6차대회’ (1986.3.27~28)는 문학예술에서 이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대회에 참여한 각 부문의 대표자는 “우리 당이 문학예술사업에서 이룩한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자”는 주제하에 토론하였고, 종합보고자인 최영화 문예총 제1부위원장은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하며 “동맹원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쏘아올리고 창작에서 주체성의 원칙,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하고,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예술적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적수령관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예총 제6차대회 앞으로 보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 불멸의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⁵¹⁾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다시 수령형상 문학이 핵심적인 지위를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은 기존의 문학예술 경향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에 약동하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아니라 작품창작에서 자연주의, 복고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이색적인 경향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복고주의, 수정주의적 경향은 우리 당의 문예 사상과 방침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반세기가 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더 잘 형상화하여야 하겠습니까.⁵²⁾

1987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의 태양」은 수령형상 문학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88년에 2부, 1989년에 3부, 1990년에 4부가 제작된 「민족의 태양」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을 소재로 삼고 있을 뿐만

51) 「로동신문」, 1986.3.28; 「로동신문」, 1986.3.29.

52) 김정일,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 (1986.5.17),”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 356~396.

아니라 이야기구조도 196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왔던 수령형상문학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작품이다. 또한 김형직을 소재로한 「려명」(1987), 김정숙을 소재로 한 「사령부를 떠나며」(1987), 김철주를 소재로 한 「혁명전사」(1987), 「영생」(1988) 등의 예술영화가 집중적으로 제작된다. 수령형상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 「조선의 별」이 채 완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유사한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 시기 북한 문학예술계에서 유일사상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86년을 계기로 북한 문학예술에서 수령형상문학이 다시 강조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왔던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볼 때 북한 문학예술의 중심이 수령형상문학으로 다시 옮겨 간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4. 주체문예이론의 정립

김정일은 1990년 「무용예술론」을 필두로 「미술론」(1991), 「건축예술론」(1991), 「음악예술론」(1991), 「주체문학론」(1992) 등 예술의 각 장르별로 저서를 출판하였다. 1973년의 「영화예술론」이 출판된 이후 20여년 만에 출판된 문학예술서적들은 김정일이 비로소 주체문예이론을

53) 1986년의 예술영화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혁명의 계승성문제와 군민관계문제,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을 취급한 다양한 주제의 영화작품들이 제작되었다고 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 198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274. 사실 1986년 김정일의 문헌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에는 수령형상문학에 대한 강조 못지 않게 현실주제의 작품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룡진·강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문학령도사 3」(평양: 문학예술연합출판사, 1993), 10장 2절 참조.

정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체문학이론은 김정일의 기존 문예이론 및 문예정책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문예관이라고 볼 수 있다. 주체문학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김정일의 문예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예술의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 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두어진다. 김정일은 이를 문학예술이 “주체혁명위업 수행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 적극 복무하는 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이다... 우리의 문학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인민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문학은 당의 수중에 장악되어있는 사상적무기이며 사람들의 사상교양, 사상개조에 복무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문화의 사상교양적 기능을 높여야 그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⁵⁴⁾

주체문예이론에서 문학예술의 목표는 김정일의 기존 문예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문학예술의 선전선동 기능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1986년부터 정치적 구호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문학예술이 구현하는 정치적 목표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된다. 문학예술이 수행하는 사상교양이나 선전선동의 사업은 당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도 당우선의 전통적인 북한의 문예관과 같다. 김정일은 문학예술사업에서 일부 작가들이 요

54)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4~16.

구하는 창작의 자유를 사회주의문학을 공격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하면서 “당의령도는 노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선명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⁵⁵⁾

문학예술이 ‘사상적 무기’이기 때문에 작가들은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고,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된다.⁵⁶⁾ 작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개별 작품이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노동계급의 수령 형상화라는 점도 1960년대 후반이래 지속되어 왔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예이론으로서 주체사실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창작방법으로서 김정일은 주체사실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창작 방법이다. 우리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하여 인간과 생활을 보고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문학예술로 하여금 인민대중에게 참답게 복무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실주의와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을 어떤 견지에서 보고 그리는가 하는데 있다.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서는 주로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리었다면 주체사실주의는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보고 그린다. 관점상의 이러한 차이로 하여 두 창작방법에는 인간을 보고 그리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특히 위대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우리 인민이 사회력사의 주체로서 누

55) 위의 책, pp. 278~282.

56) 위의 책, p. 296.

리고있는 궁지높고 보람찬 생활을 깊이있게 그려낼 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생활을 전형화하여 진실하게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사회주의문학이 전통적으로 고수하고 발전시켜온 전형화와 진실성의 원칙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견지하고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인간을 위주로 하여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현상과 그 변화발전과정을 보고 대하며 자주성을 기본적도로 하여 인간과 생활을 보고 대한다. 주체사실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는것이면 긍정적이고 본질적인것으로 보고 그리며 그에 맞지 않는것이면 부정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그린다. 주체사실주의는 인간의 성격을 전형화하는데서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⁵⁷⁾

김정일이 주장하는 주체사실주의는 사실성과 전형성의 창조라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예술에서 배경이 되는 사회적 사실과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전형성의 실제 내용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작품의 배경이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주체사실주의 작품의 사실성은 반제·반미투쟁과 주체적 사회주의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지향하는 전형성은 노동계급의 의식이 투철한 해방운동가라고 한다면 주체사실주의의 전형적 인물은 주체사상과 김일성 유일체제를 내면화한 자주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주체사실주의에서 내세우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차별성은 사람을 중심으로 놓는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혁명투쟁에서 사람의 역할보다는 객관적인 사회역사적 환경 및 조

57) 위의 책, pp. 100~106.

건 그리고 혁명적 현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계를 가진다고 비판하고 있다.⁵⁸⁾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구조보다 인간을 작품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구조를 넘어서는 개인의 전형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는 구조적 조건으로 인간의 행동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주체사실주의에서는 객관적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을⁵⁹⁾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혁명적인 인간형의 창조는 더욱 용이하게 되지만 사실성의 축소는 불가피하게 된다.

셋째, 문학예술에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학예술의 민족주의적 경향성은 조선민족제일주의로 표현된다. 김정일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문학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도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문학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하는 것은 그 사상교양기능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형상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의 훌륭한 창조물과 자기 민족의 영광 지혜에 대한 긍지와 믿음, 민족의 장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체도를 내부로부터 왜해시키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58) 김정웅, “주체사실주의,” 김정웅·리기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p. 31.

59)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명명하고 있다. 주체형의 인간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참된 전위투사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리기백,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형상,” 김정웅·리기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3」, p. 158.

들에게서 혁명에 대한 신심을 잃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 세우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⁶⁰⁾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건국 직후부터 지속되었던 북한 문화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이 일찍이 민족문화에 대한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경계하자고 말하였고, 김정일도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⁶¹⁾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문화에 대한 개념규정은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정도는 시대에 따라 변하여 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1970년대 비동맹국가와의 관계가 중시되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²⁾

「주체문학론」에서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1980년대 후반의 분위기가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의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계승하여야

60)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7.

61) 김정일,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 (1970.3.4)」, 「김정일 선집 2」 참조.

62) 1980년대 후반 민족문화유산을 강조하는 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대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문학예술계에서 수령형상 문학이 다시 강조되고 혁명전통이 중시되기 시작한 사실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85년 남북한간 문화교류가 실현되어 남한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자취를 감추었던 적지않은 유물들이 발굴복원되어 근로자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김정일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또한 민족예술을 위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1987.6.7)”,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4), p. 314; 김정일,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 p. 412.

할 민족문화의 대상이 구체화되고 그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실학에 대한 김정일의 태도 변화이다.

1967년: 실학파들의 사상이나 「목민심서」와 같은 도서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민족문화유산인것만은 사실이지만... 「목민심서」에 ‘애국’이요 ‘애민’이요 하는 문구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애국주의나 인민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⁶³⁾

1992년: 실학파는 량반사대부들의 부패성과 공리공담,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후진성을 개탄하고 ‘실사구시’의 구호밑에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우수한 문학예술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러명기를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실학파문학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그의 공적을 응당한 높이에서 평가하려 하지 않은 것은 민족허무주의의 표현이다.⁶⁴⁾

앞의 글은 1967년의 것이고, 뒤의 글은 1992년의 글로서 실학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학파의 해석 문제가 1967년 반종파투쟁 과정에서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김정일의 문예관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⁶⁵⁾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기본적으로 여타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는 가운데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상대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화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63)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데 대하여 (1967.7.3),” 「김정일 선집 1」, p. 280.

64)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85~86.

65) 실학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한중모, “주체의 문예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p. 15 참조.

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과거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적 대상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주체 문예이론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문화조류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근대 문학예술 가운데 중점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카프와 이광수, 최남선 등의 문화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카프문학에 대한 평가와 처리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카프작가들은 작품에서 당대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우리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주장하였으며 무산계급의 선각자를 전형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적리상을 표현하였다... 카프문학은 민족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지향에 맞는 우수한 형식을 창조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선행한 사실주의문학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⁶⁶⁾

우리는 리광수의 소설과 최남선의 시도 문학사에서 옹당한 수준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개척자’를 비롯한 리광수의 초기 소설들은 1910년대의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서 당대의 사회학에 대한 불만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다... 최남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가 초기에 우리 나라 민족시가발전에 기여한 새로운 형식의 시를 창작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⁶⁷⁾

김정일에 의해서 재평가 받는 것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1967년에 “우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던 김소월로부터⁶⁸⁾ 이인직, 신채호, 한용운, 김억, 정지용, 심훈, 이효석, 방정환 등의 문인과 민요 작곡자 문호

66)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77~78.

67) 위의 책, p. 84.

68)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1967.7.3),” p. 280.

월, 영화제작자 나운규에 이르기까지 근대 초기의 문학예술인 대부분이 ‘계몽기문학’으로 명명되고 “반봉건적 및 반식민적 성격이 강한 애국적인 문학”으로 높이 평가받게 된다.⁶⁹⁾

카프와 같이 1960년대에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던 문학예술작품과 작가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실학파의 재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족문화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근대 민족문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의 다양화라는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이 제기하였던 것도 사회주의 공업화의 결과 북한사회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다양해졌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기존의 폐쇄적인 문예정책으로는 다양해지는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문화의 대상을 넓히게 되었다는 것이다.⁷⁰⁾

주체문예이론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도 과거의 문학예술을 수용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포함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을 포괄하는 높은 경지의 이념체계라고 선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체문예이론도 인류사의 위대한 문예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학예술을 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⁷¹⁾

69) 김정일, 「주체문학론」, p. 84.

70) 김정일도 “소설문학의 사회적 가치는 인민대중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책, p. 236.

71) 북한에서는 주체의 문예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맑스-엥겔스와 레닌은 물론이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규보와 박지원, 정약용 등의 실학자, 셰익스피어, 칸트, 디드로, 헤겔 그리고 러시아의 각종 문예이론가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중모, “주체의 문예관,” pp. 13~21.

기존 문학예술에 대한 재평가는 김정일의 개인적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남한 문화를 포함하여 서구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도 상당하고,⁷²⁾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핵심 양식인 서사시나 장엄한 비극뿐만 아니라 서정시 그리고 풍자극이나 희극과 같은 다양한 작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⁷³⁾ 이와 같이 김정일의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도 과거 비판의 대상이었던 작가와 작품들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김정일 문예정책 변화의 의미

김정일이 북한의 문학예술분야를 담당한 이후부터 그의 문예관이나 문예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를 보여왔다. 문학예술 분야를 담당하기 시작한 김정일은 초기에 건국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기존 문예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카프의 전통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1967년의 제4차 15기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기존의 문예이론을 비판하고 수령형상문학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후 1980년까지 항일혁명문학을 중심으로 수령형상문학을 강조하였던 김정일은 1980년의 제6차 당대회와 조선작가동맹 제3차 대회를 계기로 현실적인 문제를 중시하는 숨은 영웅 형상문학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986년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6차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은 다시 혁명전통과 수령형상문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문예정책을 선회한다. 199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기존에 비판적이었던

72) 김정일은 남한의 방송을 항시 시청하고 있으며, 서구에서 제작한 영화도 보고 있다고 한다. 남한과 서구의 문화에 비교해서 기존 북한의 문학예술작품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신상욱·최은희, 「김정일왕국 下」(서울: 동아일보사, 1988), pp. 125~143 참조.

73) 김정일, 「주체문학론」, p. 263.

문화사조까지 포괄하는 주체문예이론을 확립하고 민족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문예정책의 변화과정에서 핵심적인 문계 가운데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문예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수용과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북한의 건국과정에서도 기본 문예이론으로 채택되었고, 김정일의 초기 문예관이나 문예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의 반종파투쟁의 대상이 카프계열의 문학예술인이었고, 이들이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이론이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부터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북한 문예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제기한 문예이론은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은 계급성과 혁명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 원칙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노동계급의 전형성이 아니라 수령형상문학은 노동계급의 지도자에게 전형성을 찾고, 항일혁명문학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이라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주장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은 김일성에 대한 추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성으로 표현되는 문학예술의 이념적이고 정치적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특수한 경험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지향성이 강한 문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1960년대 후반 이후 김정일 문예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성과 민

족성이 구현되는 형태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67년의 중파투쟁 이후 민족성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구체화되었고 이의 결과가 주체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실주의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문학의 중요한 역할을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고양하는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정일 문예정책에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차 심화 발전된 것과는 달리 문학예술에서 혁명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시기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령형상문학을 제기한 1960년대부터 항일혁명문학 작품들이 양산되었던 1970년대까지는 혁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 북한의 문학예술은 유일지배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선전도구로서 간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숨은 영웅 형상문학이 대두되면서 혁명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숨은 영웅 형상문학에서 김일성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인민성이 강조되면서 문학예술이 갖는 오락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민성이 당성, 로동계급성과 함께 북한 문학예술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인민성을 강조하는 것이 문학예술의 근본적인 성격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비교하여 본다면 문학예술의 정치적 선전도구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수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능도 증시된 것으로써 문학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혁명성을 강조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혁명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혁명성을 중시하는 것은 숨은 영웅 형상문학이 지나치게 인민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문학예술이 고유한 선전선동 도구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 문예정책에서 혁명성과 인민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혁명성과 인민성의 관계에서 혁명성이 우선적인 지위를 점하는 위계구조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혁명성과 인민성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기본적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에 따라 김정일이 문예정책은 그 성격이 변화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문예관과 문예정책이 변화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정치상황의 변화 때문이다. 수령력상문학이 대두된 것은 유일지배체제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일지배체제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선전선동 분야의 쇄신이 필요하였고, 고전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원칙에 충실한 카프의 전통을 잇고 있는 인물들이나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문예관은 타파되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수령형상문학은 김일성의 개인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적 충성을 핵심적인 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일지배체제의 정당화에 가장 잘 부합하는 문예관이자 문예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수령형상문학을 대표하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이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은 이를 창안한 김일성의 예술적 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⁷⁴⁾ 문화예술계도 김일성 이외의 세력은 청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수령형상문학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7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철저히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지도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항일혁명문학예술사업을 확고히 령도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이 새로운 사회주의적인민족문화건설에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문학예술사전」, p. 922.

수 있다.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상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김정일도 이념을 중시하는 문학예술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주체사실주의가 정립되고 문예정책에서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조되는 것도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구호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변화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수령형상화 문학을 증시함에 따라 1970년대까지 창작된 대부분의 문학예술 작품이 항일혁명문학 계열이었다. 획일화된 문학예술작품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결과 북한의 문학예술은 선전선동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는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이 대두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고 인민의 지향을 수용하고 있다는 설명은 북한 주민들이 기존의 문학예술에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⁷⁵⁾ 실제로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하며,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의 대부분이 이 기간에 제작되었던 것이다.⁷⁶⁾

1990년대에 들어 과거 비판의 대상이었던 문화적 조류를 포괄하는 문예정책이 수립된 것도 평양축전 등으로 외부문화를 접한 북한주민들의 문화적 성향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김정일의 문예정책 변화에 영향을

75) 김정일 자신도 문학예술분야에서 도식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판은 이전 시기에는 찾아 보기 힘든 것이다. 김정일,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p. 420.

76)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다고 이야기되는 「봄날의 눈석이」(1985)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 영화는 제일교포 사회가 무대이고, 조총련과 민단 출신 젊은 남녀가 이념을 넘어서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끼쳤다. 수령형상 문학이 대두된 1960년대 후반은 북한 고유의 사회주의 건설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단계로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나 카프의 문예관의 적합성이 떨어지던 시점이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전파하고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고취하거나 사회주의 건설 초기의 국민들을 계도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문예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카프는 일제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정립된 문예이론이었다. 1980년대의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의 대두도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전반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북한 사회의 유일사상체계화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고 사상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시점이었다.⁷⁷⁾ 반면에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결과로 북한에서도 산업사회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세대갈등, 도농갈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문예정책이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남한 문화와의 관계도 김정일 문예관의 변화를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족화해를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정책은 남한 문화와의 경쟁과 교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남조선과 문화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민요 발굴사업과 연구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고 있다.⁷⁸⁾ 또한 신상옥·최은희를 납치하여 영화제작을 맡겼던 것도 남한 문화를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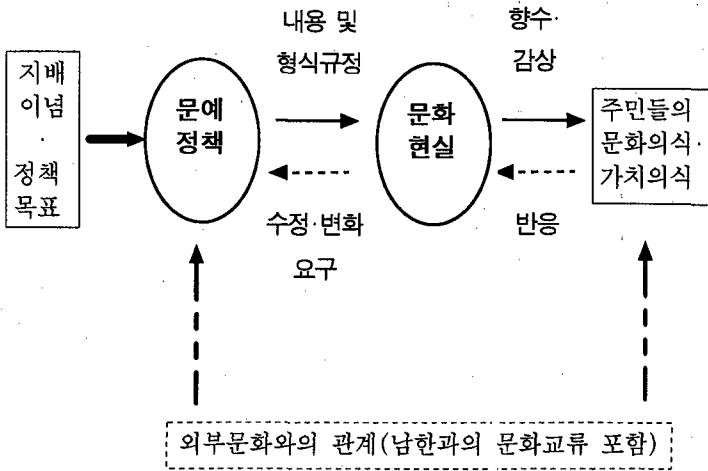
77) 김일성은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내려진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의 잔재는 극히 부분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하여 (1986.12.29),” 「김일성 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215.

78) 김정일,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p. 451.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바탕으로 문예정책 과정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문예정책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지배이념과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예정책은 작품과 같은 구체적인 문화현실의 방향을 규정하게 되고, 문화를 향수하는 주민들은 작품을 통하여 정치적 이념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어진 작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다. 주민들은 특정 작품을 선호하거나 배척하는 방법으로 문화현실에 반응을 보이게 된다. 전체주의적 사회구조하에서 정치적 검열을 마친 작품을 직접 평가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작품에 대한 선호정도는 문예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는 결과적으로 문예정책의 방향을 촉구하는 압력이 된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부문화와의 접촉, 그리고 남북한 문화교류도 문예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외부문화를 접한 주민들은 문화의식이나 가치의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개별 작품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부문화와의 접촉은 문예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정일 문예정책 결정과정>



김정일의 문예관 및 문예정책이 시기별로 변화한 것을 복한 문예정책의 근본적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학예술이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핵심적 매체이며, 문학예술의 일차적 기능은 당의 사상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문예관 및 문예정책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다. 단지 김정일은 상황에 따라 지배이념을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내면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예정책의 성격 변화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학예술이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문예정책이 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선전선동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부응하는 문예정책의 수립은 정치적 매체로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근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과제가 된다.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이 등

장하는 것이나, 김정일이 희극과 같은 새로운 양식의 작품 창작을 독려하는 것도 문학예술의 선전선동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IV.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 전망

1. 1990년대 북한 문예 상황

1990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남한과의 국력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지속되는 경제위기는 체제 유지를 위협할 정도로 심화되었고,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기존 대외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가까이 북한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던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커다란 정치적 변혁을 경험하였다. 1990년대 북한이 경험한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는 문학예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과 소설 「뜨락또르 운전사 올라」라고 볼 수 있다.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은 1990년대 북한 문화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작품이다.⁷⁹⁾ 김정일이 1991년 5월 23일 “가요 「내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작 예술 영화 「민족과 운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라고 언급한⁸⁰⁾ 이후 「민족과 운명」은 1992년에 최현덕

79) 리성덕, “로동계급의 생활철학을 구현한 세계적인 걸작 (1),” 「조선영화」, 267 (1995.9), p. 40.

80) 「내나라 제일로 좋아」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꽃도 내나라 꽃보다 굵지못했소
(후렴)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사는 내나라 제일로 좋아
랄라랄라 랄라라 랄라랄라라 내사는 내나라 제일로 좋아

벗들이 부어준 한모금 물도 내고향 샘처럼 달지 못했소
(후렴)

노래도 아리랑 곡조가 좋아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았소
(후렴)

편(1부~4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차홍기편, 윤상민편, 홍영자편, 리정모편, 허정순편, 일본인 여성편, 로동계급편, 카프작가편에 이르기까지 1997년 6월 현재 총 41부작이 완성되어 개봉되었다(다음의 표 참조).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민족과 운명」 제작의 단초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자와 주제, 사상, 인간관계 등 구체적인 형상 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민족과 운명」이 해외에 있는 교포들과 조국에서 살고 있는 본토배기들의 운명을 통하여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사상을 소리 높여 구가”하는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다.⁸¹⁾

「민족과 운명」은 무엇보다도 그 규모에서 기존의 북한 영화를 압도한다. 다부작은 북한 영화의 독특한 형식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영화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었던 「이름없는 영웅들」도 20부작에 그쳤다. 또한 1년에 7~8편씩 제작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 북한의 경제난을 고려할 때 「민족과 운명」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곳 내다시 안길땐 절을 하였소
(후렴)

김정일은 「민족과 운명」이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부 창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문학예술혁명이 이미 1970년대에 끝난것 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학예술부문에서 새로운 창작적 양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포치하고 거기에 힘을 넣고 있는 것도 문학예술부문의 이런 실태로부터 문학예술혁명을 더욱 추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일,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1992.5.23),” 「조선중앙년감 199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3), pp. 55~56.

81) 사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조선영화」, 220 (1991.10), p. 18.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의 내용〉

제 목	부	비 고
최현덕편	1~4부	최덕신(월북자)
윤상민편	5부, 14~16부	윤이상
차홍기편	6~8부	최홍희(월북자)
홍영자편	9~10부	남한기 파견한 공작원
리정모편	11~13부	이인모(비전향장기수)
허정순편	17~18부	일제시 공산주의 운동
일본인 여성편	19~24부	위안부와 딸
로동계급편	25~33부	
카프작가편	34~41부	이찬동

다른 문학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영화가 단순히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사회화의 중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민족과 운명」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소개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귀순자들에 따르면 「민족과 운명」은 1부 개봉 당시부터 주민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따라서 「민족과 운명」은 지배층의 지향점과 더불어 현재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작된 「민족과 운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민족과 운명」이 추구하는 목표는 자주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민족과 운명」의 종자를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이고, “민족의 운명의 본질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

제”라고 하고 있다.⁸²⁾ 개별 작품의 주인공은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하고 살아왔거나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깨닫고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북한만이 자본주의와 견줄 수 있는 자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김정일의 문예관과 일맥상통한다.

상대적으로 수령형상화 요소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들이 북한에 정착하는 것을 수령의 품에 안긴 것으로 묘사하고, 북한 체제의 우수성이 김일성의 영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다른 혁명대작들과 비교해 본다면 수령형상화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이것은 5대 혁명가극 이나 5대 혁명연극 그리고 「불멸의 력사」 총서와 「조선의 별」 등 북한이 자랑하는 기존의 혁명대작들이 항일혁명문학이거나 수령형상화문학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문예정책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족과 운명」은 작품 배경이 기존 북한영화와 다르다. 「민족과 운명」의 주요한 소재가 월북한 사람(최덕신, 최홍희) 혹은 친북한적인 사람(윤이상) 혹은 재일교포 등이며, 영화의 주요 배경이 남한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자본주의사회이다. 물론 「민족과 운명」 이전에도 남한이나 일본사회 등을 작품의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의 「성장의 길에서」는 남한의 4·19가 소재이며, 1980년대의 「봄날의 눈석이」와 같은 작품들은 일본 사회가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북

82) 김정일,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p. 50.

한 영화에서 남한 사회는 항상 햇빛은 상태로 묘사되었고, 일본 사회도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미국사회가 작품의 전면적인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민족과 운명」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중요한 영화의 배경인 동시에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남한, 일관 그리고 미국의 풍요롭고 화려한 생활이 묘사되기도 한다. 배경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들도 대부분 남한의 상류층이고 이들의 생활도 대단히 풍족하다. 이와 같이 남한 사회의 풍족함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남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 이를테면 정치적 부패라든지, 반민족적 경향성 등을 부각하고, 미국 사회의 경우 인종문제 등을 드러내어 궁극적으로는 북한만이 유일하게 행복한 국가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기존 북한 영화의 자본주의 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어떠한 시기에도 자본주의 사회가 배경이 되는 작품이 북한의 간판영화로서 취급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족과 운명」은 북한 문예정책의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족과 운명」에는 새로운 문학예술 종류가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특히 영화음악 분야는 새로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기존의 영화에서는 합창이나 중창 그리고 관현악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족과 운명」에서는 기존 영화에서 활용하였던 음악과 더불어 서구적 악기구성을 갖추고 있는 「보천보 경음악단」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배우들의 연기나 촬영기법도 과거의 영화들과 비교할 때 서구의 영화기법을 적지 않게 수용하고 있다. 새로운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문화취향이 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문예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민족과 운명」에서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심지어 「최현덕편」과 「차홍기편」에서는 남한의 고위직을 지냈고 반공주의자였던 사람들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다. 「로동계급편」에서는 북한에서 성분이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는 한국전쟁시 미군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새로운 사회건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이를 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성분이 나쁘거나 반 북한적인 사람들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일의 ‘인덕정치’와 ‘광복정치’를 과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면 「민족과 운명」에서 다양한 출신을 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북한에서 사회통합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체제의 위기가 사회적 일탈로 이어지는 경우, 보다 강력한 통합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소외되었던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다부작 영화들과 비교해서 「민족과 운명」은 주제나 소재의 일관성이 떨어져 있다. 「조선의 별」, 「이름없는 영웅들」과 같은 다부작은 다루고 있는 소재가 항일 빨치산 활동으로 동일하고, 주제도 김일성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일본제국주의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과 운명」은 1부에서 13부까지 자본주의 사회가 무대가 되고 있으나, 노동계급을 다루고 있는 25부에서 33부까지는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기가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허정순편」(17부, 18부)와 「카프작가편」(34부~40부)은 일제시대가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다른 작품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으나, 「로동계급편」은 계급주의를 강조하고 당과 국가에 헌신하는 개인을 부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990년대 북한의 문예상황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던 김일성의 사망 이후 적지 않은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추모문학이 1994년 이후 급증하였다는 외형적인 변화이외에도 구체적인 작품 성향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김명익의 소설 「뜨락또르 운전사 일가」(1995)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뜨락또르 운전수 일가」는 농촌 기계화를 통하여 증산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로서 이전의 소설들과 비교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뜨락또르 운전수 일가」에서는 영웅적 주인공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1980년대의 문학은 이른바 숨은 영웅을 주인공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대한 사건의 가운데 있는 영웅적인 인물보다는 소리 소문 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보통의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으나 이 소설에서는 다시 전통적인 영웅적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뜨락또르 운전사 일가」에는 무려 14명의 영웅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됨으로서 1980년대 소설의 숨은 영웅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둘째, 개인승배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의 문학에서는 「불멸의 총서」와 「향도의 총서」와 같은 거대한 개인승배의 작품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일상적인 삶을 소재로 하는 작품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일상적인 생활을 다루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셋째, 「뜨락또르 운전수 일가」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거의 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비적대적 갈등의 범귀 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였지만, 1980년대의 문학에서는 갈등이 여각화되어 있어 북한의 현실적 모순이 어느 정도 드러났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적대적인

것인가 적대적인가 하는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대단히 첨예한 갈등이 등장하는 작품도 있었다. 특히 이전의 농촌 소설에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이 작품의 전면을 차지하는 반면, 「뜨락또르 운전사 일가」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넷째, 「뜨락또르 운전수 일가」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시대의 문학작품에서는 「향도의 총서」 이외의 작품에는 주로 김일성이 등장하고 있으며, 김정일이 등장하는 소설에서는 김일성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동시에 소설에 등장하고 있고, 「뜨락또르 운전사 일가」에서는 주인공에게 김일성이 편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김정일이 전화로 통보해주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뜻을 김정일이 전한다는 것은 '유훈통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김정일 문예정책 변화 전망

김정일 문예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북한 문예상황의 의미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작품들과 비교해서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영화 「민족과 운명」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 대두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민족과 운명」이 제작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주류문화 성향이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민족과 운명」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평양축전이 북한 주민들과 문화종사자들에게 일종의 문화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보천보 경음악단」이 상징하듯이 서구적인 문화와 유사한 문화들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상황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

해서 기존의 문화적 양식들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형식이 나 내용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체제선전이나 정당화라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과거의 이야기 구조나 형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고, 이 결과 「민족과 운명」과 같은 작품이 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북한체제가 처해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고립화가 더욱 심화된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제한적인 교류가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의 접촉이 동구에서처럼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국과 같이 체제의 전반적인 성격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지배층은 제한적인 개방을 위한 일정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표출된 것이 「민족과 운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체제의 보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동화를 주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예방주사 효과를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예창작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창작과정에서도 세밀한 정치적 효과를 계산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민족과 운명」도 뚜렷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획되고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작된 「민족과 운명」 연작의 흐름을 보면 처음 생각한 정치적 계산이나 정책목표가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배층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로동계급편」의 대두이다. 「로동계급편」은 「민족과 운명」의 25~33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전 작품의 흐름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로동계급편」의 무대는 북한이며 종자를 ‘씻물 철학’으로 삼았다. 소재는 천리마운

동이고 사회주의적 생산의 독려를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로동계급편」은 1960년대 이래의 전통적인 북한영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로동계급편」은 그 이전의 「민족과 운명」, 연작들과 차이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규모도 제일 크고(10부작), 북한에서는 「민족과 운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⁸³⁾ 이와 같은 평가는 기존의 「민족과 운명」 연작이 문제가 있다고 북한 지배층이 판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무대로 하였거나, 작품의 무대가 북한이 되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와의 비교가 주제였던 이전의 연작들과는 달리 북한을 중심으로 계급성을 강조하는 노동계급이 등장한 것은 지배층의 의도와는 달리 일반주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화려함에 경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족과 운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으나, 주민들의 주된 관심은 배우들이 입고 있던 의상이나 화려한 장면 등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개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지배층의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호기심을 표시하였고, 화려하고 풍족한 삶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문학예술에서 다시 계급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로동계급편」의 등장은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로동계급편」이 제작된 1995년은 김일성 사후로서 체제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사상통제를 강화

83) 북한에서는 로동계급편이 “「민족과 운명」의 총적인 구성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동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성덕, “로동계급의 생활철학을 구현한 세계적인 걸작 (1),” p. 41.

하는 한편 가중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가 북한의 대표적인 문예물인 「민족과 운명」의 제작방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5년 이후 정치적으로 강조되는 ‘고난의 행군 정신’이나 ‘붉은기’의 대두도 「로동계급편」의 제작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⁸⁴⁾

「민족과 운명」에서 「로동계급편」이 등장한 것이나 소설 「뜨락뜨락 운전수 일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 사후 북한의 문예정책은 이념을 중시하는 수령형상문학 시대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 개혁적 성향의 작가와 보수적 성향의 작가 사이의 긴장이 극대화되어 보수화되는 문학예술계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거나 반발하는 작가는 숙청되었다.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높새바람」의 작가 홍석중은 보수화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청되었고, 「벗」의 작가 백남룡은 「향도의 총서」 중 「동해천리」를 집필하여 보수화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작품 창작 방향을 전환하였다. 「뜨락뜨락 운전수 일가」의 김명익도 1980년대 개혁적 성향을 띠었던 작가이다.

또한 김일성 사후 문학작품의 창작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작활동이 왕성하던 1980년대에는 한 해에 15편 내지 16편의 중장편 소설이 창작되었으나 1995년 이후 ‘고난의 행군 기간’에는 한 해에 발표되는 중장편이 5편 정도에 불과하다. 작품 창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계급성이나 혁명성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짐에

84) 로동계급편의 등장은 「조선영화」에 붉은기에 대한 논문이 게재된 시점과도 맞물린다. 김정옥, “사회주의붉은기는 언제나 하늘 높이 휘날리리,” 「조선영화」, 267 (1995.8); 김성남, “우리의 붉은기,” 「조선영화」, 268 (1995.10); 소설, “주체영화예술은 붉은기를 들고 더 높이 비약하자,” 「조선영화」, 271 (1996.1) 참조.

따라 작가들의 창작의욕이 감퇴되었고, 작품 소재 자체가 한계를 갖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 문예정책은 계급성이나 이념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수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과거 형태의 문학예술로 회귀하거나, 현재의 분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학예술분야의 이념화 및 보수화를 상징하고 있는 「민족과 운명」의 「로동계급편」도 북한에서는 과거 이념적 성향 작품의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⁸⁵⁾ 영화의 내용을 엄밀히 살펴보면 과거의 유사 작품들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로동계급편」에서는 비록 노동계급이 작품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노동계급 출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분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점이나, 공장이나 작업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 가족 문제 등 일상적인 삶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점은 1980년대 이후 숨은 영웅 형상문학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재나 주제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로동계급편」이 과거의 작품들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령형상화 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의 방식으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재강조된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 일반주민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였다는

85) 북한에서는 「민족과 운명」의 「로동계급편」이 1960년대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 「로동가정」의 뒤를 잇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기명, “로동계급주체영화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 「조선영화」, 265 (1995.5), p. 34.

사실을 감안한다면 복고주의적인 문학예술이 주민들에게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문학예술이 일방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으로 흐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의 최고지도자이며 문학예술 부문도 직접 관할하고 있는 김정일 자신이 다양한 문학예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북한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휘파람⁸⁶⁾ 대한 아래의 논의를 보면 김정일이 생활적인 문학예술과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방송에서 또 편향을 범하는 것 같아 노래 「휘파람」만 내보내지 말고 혁명가요도 내보내라고 하었다고 하시면서 요즘 정세로 보아 사람들에게 「휘파람」과 같은 생활적인 노래만 부르게 할 수도 없다고 가르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음악보급에서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생활적인 노래와 함께 보다 혁명적인 노래들을 더 많이 내보내어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칠 수 있게 하였

86) 휘파람은 조기천의 시에 보천보 경음악단을 이끌고 있는 리종오가 곡을 붙인 것이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어제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복순이네집 앞을 지날땐 이가슴설레여 나도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불었네
(후렴) 휘휘휘 호호호 휘휘호호호 휘휘휘 호호호 휘휘호호호

한번 보면은 어쩐지 다시 못볼듯 보고 또 봐도 그 모습 또 보고 싶네
오늘 계획 300을 했다고 생긋이 웃을 때 이 가슴에 불이 인다오
이일을 어지하라
(후렴)

어제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혁신자의 꽃다발 안고서 휘파람 불면은 복순이도 내 마음 알리라
알아주리라
(후렴)

으며 우리 인민은 그 어느때 보다도 건전한 사상감정을 지니고 사업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긴장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혁명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을 옹계 결합할 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사상을 적극 구현해 나감으로써 음악보급사업에서는 혁명적인 것과 생활적인 노래들이 적절하게 배합함으로써 누구나 다 감하고 풍부한 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도덕적 풍모를 훌륭히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⁸⁷⁾

현재 제작 개봉 중인 「민족과 운명」이 「카프편」이라는 사실은 북한 문학예술에서 혁명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전망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967년의 반종파 투쟁에서 몰락한 카프의 문학적 전통을 대신한 것이 혁명성을 강조하는 수령형상문학이고, 항일혁명문학이었으며, 카프의 복권은 1980년대 이후 숨은 영웅 형상문학의 대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카프편」이 등장한 것은 김일성 사후 강화되었던 보수화 경향이 주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1990년대의 문화적 상황과 김정일의 문예정책 변화과정을 생각할 때, 앞으로 북한 문예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혁명성을 강조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은 꾸준히 강조될 것이나 그 내용이나 형식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양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민족과 운명」 중에서 「로동계급편」이 이러한 양식의 작

87) 장정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 업적 11: 군중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p. 200.

품의 전형이 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의 숨은 영웅 형상문학으로부터 출발한 생활과 밀착한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은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문학예술 분야도 김정일이 명실상부하게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들이 나타날 수 있다. 「민족과 운명」의 「카프편」 제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일성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던 이광수나 카프를 재평가한 것은 1980년대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⁸⁸⁾ 따라서 북한의 대표적인 국가 문화사업에서 카프를 내세우는 것은 북한 문화사에서 김정일 시대를 공표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셋째,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수령의 지위를 계승하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김정일을 대상으로 하는 수령형상문학이 점차 활기를 띠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불멸의 향도」 연작과 별도로 여러 장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수령형상화 문학이 창작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넷째,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예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보천보경음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과 견줄 수 있는 공연단체를 장르별로 신설하거나 '휘파람'류의 음악창작을 독려하거나, 새로운 형식의 영화 창작이 추진될 수 있다. 김정일과 북한의 지도층이 부분적인 수준에서라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한다면 새로운 양식의 문학예술창작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88) 조선문학사에서 이광수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1983년이고, 1992년 김정일의 「주체문학론」를 통하여 이광수의 복권이 공식화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 초 김일성 대학에 유학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1980년 제3차 작가동맹회의 이후 문학가들을 중심으로 이광수의 복권문제가 논의되었고 이를 김정일이 승인하였다고 한다.

다섯째, 문학예술 작품의 성격변화와 관계없이 창작자인 작가들에 대한 사상적, 조직적 통제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인텔리인 동시에 예술가인 작가들은 사회의 변혁기에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학예술 분야에 개방이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작가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전체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여섯째, 김정일이 문학예술에서 혁명성과 생활성, 수령형상문학과 숨은 영웅 형상문학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예정책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은 점차 혁명적인 작품들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김정일은 기존의 혁명적인 문학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문화적 취향이 변한 주민들은 공식문화를 소외시키고, 비공식적인 문화를 창작하고 유통시킬 여지도 없지 않다.

V. 결 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학예술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가 문학예술에 관심을 갖고 문예정책을 관할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레닌이나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도 문학예술에 관심이 많았으며, 문예정책에 관한 최고지도자들의 문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문학예술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김일성의 정치적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은 문학예술분야 사업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은 최고지도자가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높다.⁸⁹⁾ 따라서 직접 문학예술을 담당 하였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문예정책의 방향설정에도 김정일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강력한 통제체제와 획일화된 사회구조를 생각한다면 김정일의 문예정책은 북한의 문화적 상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사회가 상대적으로 정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까닭으로 김정일의 문예정책이나 북한의 문학예술도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통하여 일정한 변화를 경험하였듯이 김정일의 문예정책이나 북한의 문학예술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북한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와 작품의 창작에서 계급성 및 이념성 등 작품의 혁명성과 주민들의 호

89) 지난 5년 동안 김정일은 150여회에 걸쳐서 문학예술 사업에 대한 예술지도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방송」, 1997.6.1.

응도라고 할 수 있는 인민성을 균형있게 확보하는 문제였다. 196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여타 사회주의 국가 몰락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됨에 따라 북한의 문예정책에서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점차 약화되어 현재는 김정일의 '주체사실주의' 문예정책의 기본 이론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혁명성과 인민성의 문제는 시기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나 1970년대와 같이 혁명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반대로 인민성을 지나치게 중시하였던 1980년대 초반의 경우와는 달리 1980년대 후반부터는 혁명성을 인민성에 우선하면서도 양자의 균형을 맞추려는 문예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위기가 심각한 양상으로 구체화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혁명성을 강조하는 문학예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북한의 문예상황은 이와 같은 혁명성과 인민성의 위계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정일 문예정책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토대로 김정일 문예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김정일은 문학예술이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문화계 반종파투쟁을 주도하였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령형상문학을 제기하였다. 또한 빨치산 활동이 바탕이 되는 항일혁명문학을 체계화하고 높이 평가함으로써 김일성과 항일혁명 1세대로부터 개인적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김정일은 북한 문학예술이 갖는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화부문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상옥·최은희를 납치하여 새로운 영화를 만들게 하였고 이들이 만든

영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함으로써 북한 영화가 외부세계에서 평가받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 비판받았던 실학이나 카프 그리고 이광수, 최남선 등 근대 문학가를 복권시킴으로써 북한 문학의 수준 제고를 시도하였다.

셋째, 김정일은 북한 주민의 문화적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사상성은 떨어지나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휘파람과 같이 가볍고 밝은 노래의 창작 보급을 허용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보천보 경음악단 등을 지원하였다. 1980년대의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을 제창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의 문학예술이 갖는 정치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문학예술의 외양은 보다 세련화된 형태가 되기를 바랐다. 김정일의 문예관련 문건의 제목에는 '새로운 양양', '새로운 전환', '새로운 가극', '새로운 연극' 등 유난히 '새로운'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 제목뿐만 아니라 문장에서도 '새로운'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것은 북한 문학예술 구체적 창작과정에서 문자 그대로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김정일은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문예정책을 수립하였다. 유일지배체제의 정당화가 절실하던 시기에는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을 강조하였고, 주민들이 혁명성만 강조하는 문학에 염증을 느끼자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는 등 체제위기가 도래하자 다시 사상성을 강조하는 문예정책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의 죽음이라는 북한 최대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통적인 영웅을 강조하는 작품 창작을 독려하였다. 카프를 비판하였다가 다시 복권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1960년대 이후 북한 문예정책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 현실 문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으나 그의 문예정책이 반드시 효과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김정일 문예정책이 갖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첫번째로 김정일 문예관이 근본적인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문학예술은 선전선동을 통하여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능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체제유지에 문학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동시에 문학예술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학예술이 체제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념과 사상에 충실하여야 하며, 이것은 새로운 표현양식의 개발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이 생각하는 발전된 문예양식의 기준이 다분히 세련된 자본주의 문화라고 한다면 문학예술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와 문학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정책 사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문예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문화가 정치에 예속되어 있고, 집권 세력의 정치적 결정이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만 문화를 향수하는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욕구가 한 체제의 문화현상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집단이 배타적이고 통제적인 문화정책을 고집한다면, 문화정책과 문화현상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욕구간에 괴리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의 문화적 취향이나 욕구를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문화적 욕구나 취향이 사회구조의 변화, 다른 문화와의 접촉 등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문화욕구의 변화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완만하기는 하지

만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이 사상이나 혁명을 강조하는 문화를 수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이 전통적인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을 문예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문예정책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 연구」. 서울: 문화체육부, 1996.
- 신상옥·최은희. 「김정일왕국 下」. 서울: 동아일보사, 1988.
-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91.
- 이춘길. 「김정일의 문예관과 북한의 '문학예술혁명'정책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장정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 업적 11: 군중문학 예술의 찬란한 개화」.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 전룡진·강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문학명도사 3」.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최길상. 「친애하는 지도자의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업적 4: 주체문학의 새 경지」. 평양: 문예출판사, 1991.
- 최언경·황지철·홍국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업적 2: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위대한 변혁」. 평양: 문화예술종합출판사, 1993.
- 통합문화연구소. 「김정일과 북한문화예술」. 서울: 통합문화연구소, 1996.
-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현중호·홍국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업적 3: 우리식 문학예술사업체계의 확립과 작가, 예술인 대오육성」. 평양: 문예출판사, 1990.

James, C. V.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기원과 이론」. 서울: 녹진, 1990.
Kliem, Manfred. ed. 「맑스·엥겔스 문학예술론 1」, 조만영·정재경 역.
서울: 돌베개, 1990.

2. 논문

- 김성남. “우리의 붉은기.” 「조선영화」. 268 (1991.10)
-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1946.5.24).” 「김일성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 _____. “홍명희와 한 담화 (1948.5.6).”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1949.10.15).”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전체 각가 예술가들에게 (1951.6.30).” 「김일성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 _____.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 (1956.4.23).”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1960.11.27).”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군중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 (1961.3.7).”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1961.9.11).”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혁명주제작품에서의 몇가지 사상미학적 문제 (1967.1.10).”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공화국 정부 10대 정강 (1967.12.14).”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 _____.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하여 (1986.12.29).” 「김일성 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1987.6.7).”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정육. “사회주의붉은기는 언제나 하늘 높이 휘날리리.” 「조선영화」. 266 (1995.8).
- 김정웅. “주체사실주의.” 김정웅·리기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김정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1964.12.10).”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1966.2.7).”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1967.6.7).”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4·15 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1967.6.20).”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1967.7.3).”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 (1970.3.4).” 「김정일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영화예술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971.2.15).” 『김정일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2.9.6)” 『김정일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1986.5.17).”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_____.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1992.5.23).” 『조선중앙년감 199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3.
- 리기백.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형상.” 김정웅·리기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리성덕. “로동계급의 생활철학을 구현한 세계적인 걸작 (1).” 『조선영화』. 267 (1995.9).
- 반성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이론.” 『중소연구』. 14권 4호 (1990 겨울).
- 신기명. “로동계급주체영화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 『조선영화』. 265 (1995.5).
- 안함광.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에 대한 송가: 장편소설 안개흐르는 언덕을 두고.” 『문학신문』. 1966.9.9.
- 위찬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운은 공산주의적 사상 개조운동.” 『근로자』. 454 (1980.2).

- 이우영. “김정일 문예론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2권 1호 (1993).
- 한상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961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2년 국가예산에 관한 보고.” 「북한최고회의자료집 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한중모. “주체의 문예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Engels, F. “Letter to Margaret Harkness.” Lee Baxandall & Stefan Morawski, ed. and trans., *Marx & Engels: On Literature & Art*. St. Louis: Telos Press, 1973.

3. 기 타

- “문학예술혁명과 빛나는 령도.” 「조선예술」 330 (1984.6).
-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적대중운동.” 「근로자」. 453 (1980.1).
- 「김정일동지략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 「로동신문」. 1980.1.11.
- 「로동신문」. 1986.3.28.
- 「로동신문」. 1986.3.29.
-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제2차 조선작가대회 문헌집」.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 「조선중앙방송」. 1997.6.1.
- 「조선중앙년감 195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7.
-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조선중앙년감 198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4.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사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조선영화」. 220 (1991.10).

사설. “주체영화예술은 붉은기를 들고 더 높이 비약하자.” 「조선영화」. 271 (1996.1) 참조.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9」.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 앞.” 「조선문학」. 388 (1980.2).

<부록> 김정일 문예관련 문건 목록

연도	문 헌 명	비 고
1964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 든 힘을 집중하자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4	군인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조선인민군 2.8영화촬영소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4	력사 유적과 유물 보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 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6	혁명적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영화예술부문 창작자,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66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6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민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데 대하여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7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작곡가들앞에서 한 연설
1967	4.15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 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 대한 지도 사업을 잘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 선동부 영화과 일군들과 한 담화
1967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7	인간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전형을 깊이있게 실현할데 대하여	작가들과 한 담화
1967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연도	문 헌 명	비 고
1967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8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하여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8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예술영화와 「형제들」의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8	당에 끝없이 충직한 문예전사로 준비하자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졸업생들과 한 담화
1968	음악창작방향에 대하여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9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9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정치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영화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9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줄 아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0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작가, 연출가들과 한 담화
1970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처리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 참가하는 예술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0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0	작가들은 아는 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	영화문학작가들앞에서 한 연설

연도	문 헌 명	비 고
1970	문학예술작품에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하여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	영화예술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직원들앞에서 한 연설
1971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영화문학가들과 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71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1971	중앙방송위원회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71	우리 식의 혁명적영화창조세계를 철저히 세우데 대하여	영화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	혁명가극 「피바다」는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	혁명가극 「피바다」창조성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1	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과 탐구의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연설
1971	「피바다」식혁명가극 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가극을 창조하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	영화예술부문의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영화예술부문 당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2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	국립연극단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	텔레비죤방송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텔레비죤방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2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에서 한 결론
1973	영화예술론	단행본

연도	문 헌 명	비 고
1980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조선작가동맹 제3차회의에 참가한 작가들에게 보낸 서한
1981	주체적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1983	영화를 통한 당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	당 사업의 심화 발전에 대한 문헌
1986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	체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	체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단행본
1987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집단체조창작가들과 한 담화
1988	연극예술에 대하여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90	무용예술론	단행본
1991	미술론	단행본
1991	건축예술론	단행본
1991	음악예술론	단행본
1992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2	주체문학론	단행본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타안} 채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사계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각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황안 하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각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각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각성철 각영태 도승렬의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의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 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항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 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